

3. 폐장의 비정형성 유암종의 세포학적 소견

Cytologic Features of Atypical Carcinoid in Lung

류근신, 홍은경, 이중달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폐장의 유암종은 원발성 폐종양의 1~2%를 차지하는 종양이다. 비정형성 세포학적 소견으로 보이는 유암종은 임파절 전이율이 훨씬 높으므로 정형성 유암종과 감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저자들은 최근에 1예의 비정형성 유암종을 경험하였기에, 그 세포학적 소견을 기술하고자 한다. 환자는 46세 남자로 객담을 동반하는 기침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우측 상엽에 직경 2cm 크기의 종괴가 관찰되어 세침흡인 세포학적 검사를 시행하였고, 적출된 종괴에서 접착 도말 세포검사를 시행하였다. 세침흡인 및 접착 도말 세포 검사상, 혈액성 혹은 피사성 배경에 크기가 다양한 비교적 규일한 종양세포들이 섬세한 모세혈관 주위로 군집을 이루어 도말되거나, 개개의 세포로 흩어져서 도말되었다. 종양세포의 세포질은 풍부하고, 호산성이었으며, 세포질의 경계는 불분명하였다. 핵은 크고, 방추형이거나 타원형이었으며, 핵막은 불규칙하고 그 변연부가 두꺼워져 있었다. 염색질은 과염성으로, 거친 과립상을 보였고, 핵소체는 뚜렷하였다. 부분적으로, 보다 더 작은 세포들이 군집으로 도말되었는데, 이들 세포들의 세포질은 적거나 박리되어 있었다. 핵은 등글고, 타원형이며 다형성이 거의 없었고, 염색질은 섬세한 과립상이며 핵소체는 불분명하여 전형적인 유암종의 소견도 관찰할 수 있었다. 조직학적으로, 종양세포들의 다형성과 피사소견이 관찰되어 비정형성 유암종으로 확진하였다.

4. 흉강액과 심낭액 및 경부와 액와부 임파절로 전이된 악성흑색종의 세포학적 소견

- 세침흡인검체의 전자현미경적 검색 -

Fine Needle Aspiration Cytology of Metastatic Malignant Melanoma

- Electron Microscopic Study on FNAC -

곽정자, 권계현, 진소영, 이동화

순천향대학 부속병원 해부병리과

흑색종은 매우 악성도가 높고 여러 장기로 전이를 자주 일으키는 악성종양이다. 대개의 경우 피하조직에서 발생하며, 흔히 전이를 일으키는 장기는 간, 폐, 위장관, 뼈와 중추신경계의 순으로 되어있다. 악성흑색종의 체강액내로의 전이는 드물지 않으며 때로는 처음 진단시에 체강액내의 암세포만 인지되는 예가 있으며 이런 경우에서 멜라닌 색소가 관찰되지 않을 때에는 다른 전이성 암종과의 감별이 쉽지 않다.

저자들은 흉강액과 심낭액 세포검사와 우측 액와부 임파절의 세침흡인세포검사로서 악성흑색종이 의심되었으며 임파절에서 흡인된 검체를 이용하여 실시한 전자현미경적 검색에서 멜라닌소체